

[원문 / 지문]

■ (미상) / 원천석

㉠눈 마ᄃ 휘여진 대를 뒤라셔 굽다턴고 구불 절(節)이면 눈 속의 프를소냐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
가 ᄃ노라

■ (미상) / 황진이

어더 내 일이어 그릴 줄을 모르던가 이시라 ᄃ더면 가라마ᄃ 제 구ᄃ야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나 ᄃ노라

■ 만흥(漫興) / 윤선도

산수간(山水間) 바회 아래 ᄃ집을 짓노라 ᄃ니 그 모론 ᄃ들은 웃ᄃ다 ᄃ다마ᄃ 어리고 하얌의 뜻의ᄃ 내 분(分)인가
ᄃ노라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흘 ᄃ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ᄃ랴 말ᄃ도 우움도 아녀도 몰내 도하ᄃ노
라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ᄃ더니 만승(萬乘)이 이만ᄃ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뫼더라
아마도 님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 (미상) / (미상)

개를 여라믄이나 기르되 ㉣요 개ᄃ치 알미오랴 먹은 님 오며ᄃ 꼬리를 뽕뽕 치며 치ᄃ락 ᄃ리ᄃ락 반겨셔 내ᄃ고
고운 님 오며ᄃ 뒷발을 버둥버둥 므르락 나으락 캉캉 즈져셔 도로 가게 ᄃ다 ㉤썼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랴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 뿐인가 하노라

어더 그릴 줄을 모르던가 나도 몰라 하노라

미운 님 오며는 꼬리를 뽕뽕 치며 치뫼락 나리뫼락 반겨셔 내닫고 고운 님 오며는 뒷발을 버둥버둥 므르락 나
으락 캉캉 즈져셔 도로 가게 한다

1. [OX]

(가)의 '눈'은 화자에게 가해지는 외부적 시련을 상징하며, 화자는 '대'에 인격을 부여하여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객관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 ○

✕ ✕

2. [OX]

(나)의 '제 구태야'는 행간 걸침과 도치법을 활용한 중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행동에 대한 자책과 임을 향한 원망의 감정을 동시에 담아내어 이별의 슬픔을 객관적이고 담담한 어조로 승화시키고 있다.

☒ O ☐ X

☐ O ☒ X

3. [OX]

(다)의 제4수에서 화자는 '소부 허유'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은거지인 '임천'이 지닌 가치를 부각하고 있으며, 이는 '삼공'이나 '만승'과 같은 세속적 권력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내면적 결핍을 보상받으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용한다.

☒ O ☐ X

☐ O ☒ X

4. [OX]

(라)에서 '요 개'는 화자와 고운 임의 만남을 방해하는 원망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오지 않는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투영된 대상이기도 하다. 화자는 이러한 개에게 밥을 주지 않겠다는 과장된 다짐을 통해 자신의 비애감을 해학적으로 반전시키고 있다.

☒ O ☐ X

☐ O ☒ X

5. [OX]

(가)의 '대'와 (다)의 '되'는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자연물이다. 그러나 (가)의 화자가 '대'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세파에 맞서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다)의 화자는 '되'를 관조의 대상으로 삼아 속세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체관적 태도를 보여준다.

☒ O ☐ X

☐ O ☒ X

6. [OX]

(나)와 (라)는 모두 부재하는 임에 대한 여성 화자의 그리움을 다루고 있으나, (나)는 유교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은 기녀의 솔직한 감정을 영탄적 어조로 표출한 반면, (라)는 일상적 소재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평민층의 진솔한 생활 감정을 산문적 율격 속에 담아내고 있다.

☒ O ☐ X

☐ O ☒ X

7. [OX]

(다)의 제1수에서 화자가 자신을 '어리고 하얏(어리석은 사람)'이라 칭한 것은, '산수간'의 삶을 비웃는 '그 모른 들(속세 사람들)'의 비판을 수용하여 자신의 은둔 지향적 삶에 대한 회의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O ☐ X

☐ O ☒ X

8. [OX]

(가)의 중장에서 '구불 절(節)이면 눈 속의 프를소냐'라는 구절은, 대나무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일시적으로 휘어질 수는 있으나 그 본질적 속성인 푸르름은 상실하지 않음을 설의적 표현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 O ☐ X

☐ O ☒ X

9. [OX]

(라)의 중장에서는 '치뿔락 나리뿔락', '버둥버둥'과 같은 동적 이미지를 지닌 의태어를 대구의 형식으로 배치하여, 미운 임과 고운 임을 대하는 개의 상반된 행동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화자의 내적 갈등을 비극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 O ☐ X

☐ O ☒ X

10. [OX]

(다)의 제3수에서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는, 먼 산을 바라보는 현재의 즐거움이 과거에 임을 만났을 때 느꼈던 반가움보다 크다는 것을 설의적으로 표현하여, 자연과 동화된 물아일체의 경지가 주는 절대적 희열을 강조한 것이다.

☒ O ☐ X

☐ O ☒ X

[객관식]

1. [객관식]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감정을 철저히 절제하여 이별의 슬픔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다)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라)는 평시조의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며 양반층의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 ⑤ (가)와 (다)는 모두 세속적 가치를 긍정하며 속세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 [객관식]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가치를 상징하는 자연물이다.
- ② ㉡은 임이 구태여 갖겠냐는 뜻과 내가 구태여 보냈다는 뜻을 모두 포함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 ③ ㉢은 화자가 속세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느끼는 자연 친화의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세속적 권력이나 가치를 의미한다.
- ⑤ ㉤은 화자와 고운 임의 사랑을 방해하는 대상이자 원망이 전가된 대상이다.

3. [객관식]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는 고려 왕조에 대한 화자의 굳은 충심과 절개를 상징한다.
- ② '늪라서 굶다툰고'에는 눈을 맞아 휘어졌을지언정 꺾이지 않았다는 화자의 항변이 담겨 있다.
- ③ '프를소냐'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지조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 ④ '세한고절'은 추운 계절에도 홀로 푸른 대나무의 속성을 통해 화자 자신의 절개를 예찬한 것이다.
- ⑤ 화자는 자신을 회유하려는 세력과 타협하여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객관식]

(나)의 표현상 특징과 시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장에 쓰인 '어저'는 임을 원망하는 화자의 분노를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 ② 중장에서는 도치법과 행간 걸침을 활용하여 화자의 아쉬움과 회한을 심화하고 있다.
- ③ 종장의 '나도 몰나 하노라'는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 식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 ④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임과 이별한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숨기고 있다.

5. [객관식]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시련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은 대나무의 절개를 통해 화자의 굳은 의지를 드러낸다.
- ② ㉡는 임을 떠나보낸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화자의 후회와 자책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을 통해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준다.
- ④ ㉣는 옛 성현의 삶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속세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다.
- ⑤ ㉥는 알미운 개에게 밥을 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설의법을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6. [객관식]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조선 시대 시조는 시대 변화에 따라 향유층과 내용, 형식이 변모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주로 사대부들에 의해 유교적 충의 사상이나 자연 친화적 삶을 노래한 ㉠ 이/가 창작되었고, 기녀들은 임에 대한 그리움과 이별의 정한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평민 의식이 성장하면서 작가층이 확대되었고, 일반 서민들의 진솔한 생활 감정을 해학과 풍자에 실어 표현한 ㉡ 이/가 등장하였다. 이 갈래는 평시조에 비해 특히 ㉢의 길이가 제한 없이 길어지는 산문적 성질을 띤다.

- ① ㉠: 사설시조 ㉡: 평시조 ㉢: 초장
- ② ㉠: 평시조 ㉡: 사설시조 ㉢: 중장
- ③ ㉠: 옛시조 ㉡: 사설시조 ㉢: 종장
- ④ ㉠: 평시조 ㉡: 연시조 ㉢: 중장
- ⑤ ㉠: 연시조 ㉡: 옛시조 ㉢: 초장

7. [객관식]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과 속세를 대비하여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공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의성어와 의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③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④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며 세월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화자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8. [객관식]

(라)의 시적 대상인 '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와 고운 임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 ② 오지 않는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전가된 대상이다.
- ③ 미운 임과 고운 임을 대할 때 상반된 행동을 보여 화자의 미움을 산다.
- ④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 주고 임과의 재회를 암시하는 긍정적 매개체이다.
- ⑤ 화자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해학적으로 표출하게 만드는 소재이다.

9. [객관식]

(가)와 (다)의 화자가 지닌 공통적인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덧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 ②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물의 변화를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있다.
- ④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관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초월적 존재에게 의지하고 있다.

10. [객관식]

(나)와 (라)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임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는 반면, (라)는 임과의 만남을 체념하고 있다.
- ② (나)는 임을 떠나보낸 자신의 행동을 탓하고 있고, (라)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고 있다.
- ③ (나)는 직설적인 어조로 임을 비판하고 있고, (라)는 우의적인 기법으로 임의 잘못을 풍자하고 있다.
- ④ (나)와 (라)는 모두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⑤ (나)와 (라)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애상적인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1. [단답형]

작품 (나)의 중장 '제 구태야'는 해석의 층위에 따라 두 가지 수사법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시구를 '임'의 행위로 해석할 경우 문장 성분의 순서를 뒤바꾼 (A)이/가 쓰인 것으로 보며, '화자(나)'의 행위로 해석할 경우 의도적으로 구절을 다음 행으로 넘겨 의미를 지연시키고 강조하는 (B)이/가 쓰인 것으로 본다. A와 B에 들어갈 문학 개념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단, 심표로 구분할 것)

2. [단답형]

작품 (가)와 (다)는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대립적 시어를 통해 부각하고 있다. (가)에서 화자의 지조를 위협하는 외부적 압력이 '눈'으로 표상된다면, (다)에서는 화자가 거부하는 세속적 권력과 부귀영화가 '삼공'과 '만승'으로 표상된다. (다)의 화자가 이러한 세속적 가치보다 우위에 두며, 절대적 자부심을 느끼는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를 의미하는 4음절의 시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3. [단답형]

작품 (라)에서 화자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요 개'의 상반된 행동(미운 임은 반기고 고운 임은 내쫓음)을 묘사하며 개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다. 이처럼 화자의 부정적 감정이 본래의 대상(임)이 아닌 다른 대상(개)에게 옮겨져 표현되는 방식을 가리켜 '원망이 00되었다'고 한다. 빈칸에 들어갈 2음절의 단어를 쓰시오.

4. [단답형]

작품 (다)의 제3수에서 화자는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뉘'를 바라보며, 그리던 임이 오는 것보다 자연이 주는 반가움이 더 크다고 말한다. 특히 종장의 '말도 우음도 아녀도 몰내 도하하노라'에는 자연과 화자가 이심전심으로 통하며 주객이 미분된 경지가 나타난다. 이러한 '자연과 동화된 상태'를 지칭하는 4음절의 한자성어를 분석 노트의 개념을 바탕으로 쓰시오.

5. [단답형]

작품 (가)의 종장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에서 화자는 대나무를 '너'라고 지칭하는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세한고절'은 표면적으로는 추위 속에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의 생태적 속성을 뜻하지만, 이면적으로는 멸망한 고려 왕조의 유신으로서 화자가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핵심적인 정신적 가치를 상징한다. 이 정신적 가치를 뜻하는 2음절의 단어를 분석 노트의 주제 및 제재 설명에서 찾아 쓰시오. (단, '지조' 이외의 단어로 작성할 것)

6. [서술형]

작품 (가)의 '눈'과 작품 (다)의 '삼공(三公), 만승(萬乘)'은 모두 화자가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대비되는 가치를 지닌다. 두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밝히고, 화자가 이 대상들에 대응하는 방식을 '세한고절(歲寒孤節)'과 '임천한흥(林泉閑興)'의 의미와 결부하여 서술하시오.

[조건] '눈'과 '삼공, 만승'의 구체적인 상징적 의미를 분석 노트에 근거하여 명시할 것. / 화자의 대응 방식의 차이점(외부적 억압에 대한 저항 vs 세속적 가치에 대한 자발적 거부)을 드러낼 것. / 띄어쓰기 포함 200자 내외로 작성할 것.

7. [서술형]

작품 (나)의 종장에 쓰인 '제 구태야'는 띄어읽기와 문장 구조의 해석에 따라 주체가 달라지는 고도의 중의적 표현이다. 주체를 '임'으로 볼 때와 '화자 자신(나)'으로 볼 때 적용된 표현 기법을 각각 명시하고, 이에 따라 화자의 심리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지 서술하시오.

[조건] 주체가 '임'일 때 적용된 수사법(문장 구조 변화)과 화자의 정서를 서술할 것. / 주체가 '나'일 때 적용된 시적 기법(행 배열 방식)과 화자의 정서를 서술할 것. / 두 해석이 결합되어 시적 의미가 어떻게 풍부해지는지 결론을 맺을 것.

8. [서술형]

작품 (다)의 제4수에서 화자는 중국 고사 속 인물인 '소부, 허유'를 언급하며 그들이 '낙뚫더라(영리하더라)'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고사를 인용한 의도를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적 대비(자연 vs 속세) 및 시어 '만승(萬乘)'과 연결하여 추론하시오.

[조건] '소부, 허유' 고사의 핵심 내용(부귀영화를 마다함)을 포함할 것. / '만승'의 의미를 바탕으로 화자가 소부, 허유를 '영리하다'고 평가한 이유를 서술할 것. / 이를 통해 화자가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태도를 명시할 것.

9. [서술형]

작품 (라)에서 '개'는 화자의 정서 표출에 있어 독특한 역할을 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화자가 개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표면적 이유와 이면적 심리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사설시조의 형식적 특징이 개의 행동을 묘사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서술하시오.

[조건] 개에 대한 원망의 표면적 이유와 실제 원망의 대상(이면적 심리)을 명확히 구분할 것. / 사설시조의 장형화된 종장과 결부하여 구체적인 표현법(음성 상징어 등) 2가지를 제시할 것. / 이러한 표현이 지니는 미학적 효과(해학성)를 서술할 것.

10. [서술형]

작품 (가)~(라)를 통해 조선 시대 시조의 문학사적 흐름을 파악할 때, 향유층의 확대에 따른 시조의 '내용(주제)'과 '형식'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조건] 조선 전기 사대부(가, 다)와 조선 전기 기녀(나), 조선 후기 평민(라)의 주된 창작 내용을 각각 대조하여 서술할 것. / (가), (나)의 형식과 (라)의 형식을 명칭과 함께 비교할 것. / 이러한 변화가 지니는 문학사적 의의를 분석 노트에 근거하여 1문장으로 결론지을 것.

[수능형 문제]

1. [수능형]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눈'은 화자가 극복해야 할 내면적 갈등을 의미한다.
- ② (나)의 '제 구태야'는 화자 자신의 행동만을 탓하는 표현이다.
- ③ (다)의 '삼공'과 '만승'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를 나타낸다.
- ④ (라)의 '개'는 화자와 임을 연결해 주는 긍정적 매개체이다.
- ⑤ (가)의 '대'는 시련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는 화자의 굳은 의지를 드러낸다.

2. [수능형]

(가)~(라)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감정을 철저히 절제하여 이별의 슬픔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다)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보여 주고 있다.
- ④ (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 ⑤ (가)와 (다)는 모두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3. [수능형]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원천석은 고려 말 조선 초의 학자로,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조선이 건국되자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하였다. 태종 이방원이 그를 여러 차례 불렀으나 끝내 응하지 않으며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켰다.

- ① '눈'은 새로운 조선 왕조에 협력을 강요하는 세력의 압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군.
- ② '휘여진 대'는 조선 건국 세력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겪는 화자의 고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구불 절'이 아니라는 것은 태종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군.
- ④ '눈 속의 프를소냐'는 은거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왕조의 관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군.
- ⑤ '세한고절'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에도 굴하지 않는 대나무처럼 고려 유신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화자의 굳은 의지를 의미하는군.

4. [수능형]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돏더라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보기>

소부와 허유는 중국 고대의 은사(隱士)이다. 요임금이 천하를 물려주겠다고 하자 허유는 귀가 더러워졌다면 영수(潁水) 강물에 귀를 씻었고, 소부는 그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다며 소를 끌고 상류로 올라갔다. 이들은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철저히 거부하고 자연 속에서의 삶을 택한 인물들로 추앙받는다.

- ① 화자가 소부와 허유를 '낙돏더라(영리하더라)'라고 평가한 것은 그들이 세속적 가치를 거부한 선택을 긍정하기 때문이겠군.
- ② 화자는 요임금이 제안한 천하를 '삼공'이나 '만승'과 같은 세속적 권력과 동일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겠군.
- ③ 허유가 강물에 귀를 씻은 행위는 화자가 '임천한흥'을 누리기 위해 속세와의 단절을 시도하는 모습과 맞닿아 있군.
- ④ 소부가 소를 끌고 상류로 올라간 것은 화자가 '먼 뎡'를 바라보며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심정을 부각하는 군.
- ⑤ 화자가 소부와 허유의 고사를 인용한 것은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군.

5. [수능형]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조선 시대 시조는 시대 변화에 따라 창작 계층과 내용, 형식이 변모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주로 양반 사대부들에 의해 유교적 충의나 자연 친화 사상을 담은 (㉠)가 창작되었고, 기녀들은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평민 의식이 성장하면서 작가층이 확대되어, 일반 서민들의 진솔한 생활 감정을 해학과 풍자에 실어 표현한 (㉡)가 등장하였다. 이 갈래는 평시조에 비해 특히 (㉢)의 길이가 제한 없이 길어지는 산문적 성질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 ① ㉠: 평시조 ㉡: 사설시조 ㉢: 초장
- ② ㉠: 사설시조 ㉡: 평시조 ㉢: 중장
- ③ ㉠: 평시조 ㉡: 사설시조 ㉢: 중장
- ④ ㉠: 연시조 ㉡: 사설시조 ㉢: 종장
- ⑤ ㉠: 사설시조 ㉡: 연시조 ㉢: 초장

1. O

→ '눈'은 새로운 조선 왕조에 협력을 강요하는 압력(시련)을 상징하며, 종장에서 대나무를 '너'라고 지칭하는 의인법을 통해 고려 유신으로서 절개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정치적 신념)를 객관화하여 예찬하고 있습니다.

2. X

→ '제 구태야'가 도치법과 행간 걸침을 활용한 중의적 표현이라는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탄사('어저')와 감탄형 종결 어미 등을 사용하여 이별의 후회와 그리움이라는 복합적 감정을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표출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담담한 어조로 승화시켰다'는 설명은 완전히 틀린 오개념입니다.

3. X

→ 화자는 '소부 허유' 고사를 인용하여 세속적 가치('삼공', '만승')보다 자연 속의 삶('임천한흥')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며 강한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이를 세속적 권력을 누리지 못한 내면적 결핍이나 심리적 방어 기제로 해석하는 것은 안분지족의 태도를 훼손하는 심각한 오독입니다.

4. O

→ '요 개'는 임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원망이 전가된 대상이자, 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유도하는 매개물입니다. 종장에서 싼밥조차 주지 않겠다는 설의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임을 기다리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웃음으로 치환하는 사설시조 특유의 해학성을 잘 보여줍니다.

5. X

→ (가)에서 화자가 대나무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절개를 드러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에서 '되(산)'는 단순한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화자와 이심전심으로 소통하는 '물아일체'의 대상이며, 화자는 속세의 변화에 순응하는 체관적 태도가 아니라 속세를 벗어난 탈속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절대적 긍정을 보여줍니다.

6. O

→ (나)는 조선 전기 기녀 시조로 감탄사를 활용해 이별의 정한을 솔직하게 영탄적으로 노래했고, (라)는 조선 후기 사설시조로 중장이 길어진 산문적 형식 속에 개라는 일상적 소재와 의태어, 의성어를 사용하여 평민층의 진솔한 감정을 해학적으로 담아냈습니다.

7. X

→ '어리고 하얗'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일 뿐입니다. 화자는 속세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종장에서 '내 분(分)인가 하노라'라고 말하며, 안빈낙도의 태도와 자연 속 삶에 대한 굳건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회의감을 느낀다는 진술은 거짓입니다.

8. O

→ 초장의 '눈 맞아 휘어진 대'와 연결되는 구절로, 외부적 시련(눈)에 의해 겉으로는 휘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정 굽힐 절개라면 눈 속에서도 푸르겠느냐고 반문(설의법)함으로써 대나무의 불변하는 본질(지조와 절개)을 강렬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9. X

→ 의태어를 활용하여 개의 상반된 행동을 시각적이고 생동감 있게 구체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설시조인 이 작품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원망스러운 상황을 '해학적'으로 그려내어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지, 화자의 내적 갈등을 '비극적으로 고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10. ○

→ '이리하라(이러하겠는가)'는 아무리 그리워하던 임이 온다고 한들 지금 자연(먼 뉘)을 바라보는 반가움만큼 크겠느냐는 뜻입니다. 이는 임보다 자연이 주는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것을 설의법으로 나타내어, 말이나 웃음 없이도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강조한 고난도 표현입니다.

1. ㉓ (3번)

→ (다)는 '소부 허유'라는 중국 고사 속 인물을 활용하여 속세를 떠나 자연에 은거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내면적 갈등이 아닌 굳은 의지를, (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라)는 평민층의 사설 시조이다.

2. ㉑ (1번)

→ ㉑ '눈'은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조선 왕조에 협력을 강요하는 압력, 시련, 고통을 상징하는 부정적 시어이다.

3. ㉕ (5번)

→ 화자는 멸망한 고려 왕조의 유신으로서 새로운 조선 왕조의 회유와 압박(눈)에 굴하지 않고 절개(대나무)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타협이나 순응과는 거리가 멀다.

4. ㉒ (2번)

→ (나)의 중장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야'는 '제(임)가 구태여 갔겠냐마는(도치법)'과 '내가 구태여 보내고(행간 걸침)'의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임을 붙잡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회한을 심화하고 있다.

5. ㉔ (4번)

→ ㉔는 중국 고사 속 인물인 소부와 허유가 영리했다(낙뎃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속세를 떠나 자연에 은거하는 그들의 삶을 본받아 자연 속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비판적 수용이나 부귀영화 추구와는 거리가 멀다.

6. ㉒ (2번)

→ 조선 전기 사대부와 기녀들이 주로 창작한 정형화된 시조는 '평시조'이다. 조선 후기 평민층으로 작가층이 확대되며 산문적 성질을 띠고 길어진 시조는 '사설시조'이며, 사설시조는 특히 '중장'의 길이가 매우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

7. ㉑ (1번)

→ (다)는 '산수간', '뉘', '임천한흥' 등의 자연과 '그 모른 남들', '삼공', '만승' 등의 속세를 대비하여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에 대한 절대적 긍정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8. ㉔ (4번)

→ (라)에서 '개'는 화자와 고운 임의 사랑을 방해하는 대상이자 원망이 전가된 대상이므로, 긍정적 매개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9. ㉒ (2번)

→ (가)의 화자는 고려 왕조에 대한 굳은 절개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다)의 화자는 세속적 가치보다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이 낫다는 확고한 신념(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10. ㉔ (2번)

→ (나)는 '어저 내 일이야'라며 입을 떠나보낸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으며, (라)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알미운 행동을 하는 '개'에게 전가하여 표현하고 있다.

1. 도치법, 행간 걸침

→ '제 구태야'를 '임이 구태여 (갓갓냐마는)'으로 해석하면 서술어와 주어의 위치가 바뀐 도치법이 적용된 것이다. 반면 '내가 구태여'로 해석하면 그 목적어나 서술어가 종장의 '보내고'로 이어지게 되므로, 시구를 의도적으로 다음 행에 걸쳐 놓는 행간 걸침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하는 고도의 표현 전략이다.

2. 임천한흥

→ (가)의 '눈'이 조선 왕조의 회유와 압박이라는 부정적 외부 요인이라면, (다)의 '삼공'과 '만승'은 화자가 멀리하고자 하는 세속적 가치이다. 화자는 제4수에서 이러한 세속적 지위보다 '임천한흥(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흥취)'이 낫다고 단언하며,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절대적 긍정과 자부심을 드러낸다.

3. 전가

→ (라)의 '개'는 화자와 고운 임의 사랑을 방해하는 알미운 대상이자,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전'가된 대상이다. 자주 틀리는 오개념으로 개를 화자와 입을 연결하는 긍정적 매개체로 착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원망의 화살을 돌려 평민층 특유의 해학성을 드러내고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우회적으로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4. 몰아일체

→ 화자는 말이나 웃음이 없어도 먼 산(자연)과 마음이 통한다고 느끼며 자연에 완벽하게 동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몰아일체'의 경지를 의미하며, 세속을 벗어난 사대부의 고도의 풍류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여준다.

5. 절개

→ '세한고절'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조선 왕조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홀로 지키는 대나무의 곳곳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고려 왕조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절개(또는 충절)'를 상징한다. 자연물의 속성을 화자의 내면적 의지와 동일시한 고도의 상징적 표현이다.

6. '눈'은 새로운 조선 왕조의 회유와 압박이라는 외부적 시련을 상징하고, '삼공, 만승'은 화자가 거부하는 세속적 권력과 부귀영화를 상징한다. 화자는 '눈'이라는 강압적 억압에 맞서 대나무의 '세한고절'을 통해 고려 유신으로서의 굳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저항적 의지를 보인다. 반면, (다)의 화자는 '삼공, 만승'이라는 세속적 가치를 자발적으로 거부하고, 자연 속의 삶인 '임천한흥'에 절대적 우위를 부여하며 안분지족하는 태도를 보인다.

→ 이 문제는 시어의 부정적 속성이 외부적 압력인지, 내면에서 거부하는 세속적 가치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킬러 문항입니다. 오답 선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눈=내적 갈등' 또는 '삼공=부러움의 대상'이라는 오개념을 피하고, 지조(저항)와 안분지족(자발적 선택)이라는 화자의 태도 차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7. 주체를 '임'으로 해석하면 '제(임)가 구태야 갓갓냐마는'이라는 도치법이 적용되며, 떠나버린 임의 무정함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의 심리가 부각된다. 반면 주체를 '나'로 해석하면 '내가 구태야 (보내고)'라는 행간 걸침 기법이 적용되어, 굳이 자존심을 세워 입을 붙잡지 않고 떠나보낸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과 짙은 후회의 심리가 강조된다. 이러한 중의적 해석은 임을 향한 원망과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라는 복합적인 이별의 정한을 입체적으로 드러내어 시적 깊이를 더한다.

→ 황진이 시조의 최고난도 출제 포인트인 '제 구태야'의 중의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넘어, 도치법과 행간 걸침이라는 형식적 기법을 정확히 매칭하고, 원망(타인 향함)과 자책(자신 향함)이라는 정서의 미묘한 결을 구분해 내야 하는 고난도 추론 문항입니다.

8. 소부와 허유는 천하를 주겠다는 요임금의 제안을 더럽다며 거절하고 자연에 은거한 인물들이다. 화자는 황제의 자리인 '만승'조차 자연 속 흥취보다 못하다고 여기며, 일찍이 세속적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연을 택한 소부와 허유의 선택이 매우 지혜로웠다('낙똥더라')고 평가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과 자부심을 드러내며, 안분지족의 가치관을 정당화하고 있다.

→ 고사 인용의 표면적 의미를 넘어, 화자의 현재 심리 및 가치관 정당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묻는 문항입니다. '만승'이 황제의 권력을 뜻함을 알고, 이를 거절한 허유의 고사와 연결하여 화자의 '임천한흥'에 대한 절대적 자부심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정답의 핵심입니다.

9. 표면적으로 화자는 개가 미운 임은 반기고 고운 임은 쫓아내어 사랑을 방해한다고 원망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고운 임에 대한 야속함과 원망을 애꿎은 개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설시조 특유의 길어진 중장을 활용하여 '치똥락 나리똥락', '버둥버둥' 같은 의태어와 '캉캉' 같은 의성어, 그리고 대구법을 통해 개의 상반된 행동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이는 임을 기다리는 절박한 비애감을 일상적 소재를 통해 웃음으로 치환하는 평민 문학 특유의 해학성을 획득하게 한다.

→ 평민 문학의 방어 기제인 '원망의 전가'와 사설시조의 형식적·표현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문항입니다.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슬픔을 개에 대한 과장된 묘사와 원망으로 풀어내는 해학적 승화 과정을 음성 상징어 및 대구법과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10. 조선 전기 사대부들은 (가)와 (다)처럼 정형화된 '평시조'나 '연시조' 형식을 통해 고려에 대한 충절이나 자연 속의 안분지족 같은 유교적이고 관념적인 이념을 주로 노래했다. 그러나 기녀층인 (나)는 평시조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임을 향한 그리움이라는 진솔한 애정 정서를 담아내었고, 조선 후기 평민층에 이르러서는 (라)와 같이 초·중장이 길어지는 산문적 형태의 '사설시조'가 등장하여 일상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진솔한 생활 감정과 해학을 표현했다. 이러한 흐름은 시조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삶과 미의식을 담아내며 전 기간에 걸쳐 형식적, 내용적으로 발전해 온 생명력 있는 문학임을 보여준다.

→ 개별 작품 분석을 넘어 문학사적 거시적 관점을 요구하는 최고난도 킬러 문항입니다. 사대부의 관념적/이념적 내용에서 기녀의 애정 정서를 거쳐 평민의 구체적 생활 감정(해학)으로의 내용적 변화와,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의 산문적 형식 변화를 유기적으로 엮어내야 완벽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㉔ (5번)

→ (가)에서 '대(대나무)'는 눈(시련, 압력)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속성을 지닌 자연물로, 고려 유신으로서 절개를 지키겠다는 화자의 굳은 의지를 상징합니다. ㉑ '눈'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시련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㉒ '제 구태야'는 임이 구태여 갔겠냐는 뜻과 내가 구태여 보냈다는 뜻을 모두 포함하는 중의적 표현입니다. ㉓ '삼공'과 '만승'은 세속적 가치를 의미하며 화자가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㉔ '개'는 화자와 임의 사랑을 방해하는 원망의 대상입니다.

2. ㉑ (1번)

→ (가)는 눈 속에서도 푸른 '대나무'의 자연적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변함없는 절개와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㉒ (나)는 감탄사와 감탄형 종결 등을 사용하여 복합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㉓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은 (라)입니다. ㉔ (라)의 중장에서 설의법('이시랴')이 쓰였으나, 이는 개에게 밥을 주지 않겠다는 원망 섞인 다짐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3. ㉒ (4번)

→ '눈 속의 프를소냐'는 눈(시련) 속에서도 대나무가 푸르다는 의미로,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굳은 의지를 강조한 구절입니다. 이는 새로운 왕조의 관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내적 갈등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에도 고려에 대한 충절을 굽히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4. ㉒ (4번)

→ 화자가 '먼 뉘'를 바라보는 것은 자연과 동화된 물아일체의 경지에서 자연 친화적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이며,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심정과 는 거리가 멉니다. 소부의 행위 역시 세속적 가치를 철저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임을 기다리는 마음과는 무관합니다.

5. ③ (3번)

→ 조선 전기 사대부와 기녀들이 주로 창작한 정형적인 시조 형식은 '평시조'입니다. 조선 후기에 평민층으로 작가층이 확대되면서 일상적 소재를 활용해 해학적으로 표현한 갈래는 '사설시조'이며, 사설시조는 평시조에 비해 특히 '중장'의 길이가 제한 없이 길어지는 특징을 지닙니다.